

도시에서 수변환경의 의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차성기
(chapc@resear.re.kr)

1. 서론

- 대도시에서 하천 수변은 그 자체와 함께 문화적 관점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그 지역문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하천 수변의 정비 시에 이러한 문화적 관점은 일본의 고대 사례인 Osaka시의 Sonezaki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향후 하천 수변 정비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하고 있다.

2. 관계성에서 본 수변(水邊)

- 세계는 이른바 포스트 공업화 시대 또는 글로벌화 시대로서, 특히 일본은 전후 60년을 맞아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사회와 함께 성숙사회에 진입하면서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다.
- 공업화사회에서 중시되어 온 물건의 대량생산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다양성, 여유 및 특징이 있는 것을 존중하는 관점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수변정비에도 나타나고 있다.
- 즉, 홍수가 빨리 바다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직선으로 일정한 폭을 가진 하천보다도, 구부러지면서 폭에도 변화가 있어 주변 생태계를 감안한 하천, 이른바 자연형 하천으로의 정비가 권장되고 있고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정비보다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정비가 중요시되고 있다.
- “효율, 대량”에서 “여유, 다양성”으로의 움직임에 대하여 유형의 객체보다 무형의 마음이나 관계성의 중요성이 거론되는데, 객체(오브제)에 대한 관계성(Installation)의 개념은 1970년대 이후 예술 분야에 먼저 도

입되었다.

- 회화나 조각 같이 독립 형질만으로 성립하는 “오브제”에 대해서 작품과 작품을 둘러싼 외적 요인과의 상호관계(Installation)가 있어야 성립하는 작품을 일컫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계성은 현대의 환경기술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다.
- 최근엔 기술 자체보다도 기술의 공간적, 시간적, 인간적인 주변과의 관계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계설계 공학 분야는 사회, 가치, 사용자 및 설계자의 관계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도시 분야에선 도시의 재생 즉, Resurgent city 또는 Re-engineering이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바,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간, 시간, 문화 등과의 관계성에 대한 사고와 실천이 필요하다.

3. Osaka시의 Sonezaki 강에서 수변의 중요성

- 하천과 수변은 홍수, 오수를 방류하거나 배(舟)의 운항을 위한 유형의 사회기반일 뿐 아니라, 생활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무형의 지적 자산이 되고 있다.
- 예를 들면, Osaka에 있는 Sonezaki강(일명 : Sijimi강)과 주변에서의 뱃놀이는 당시 Osaka 사람들과 방문객에 즐거움이 되고 있는데, 길이 4km의 소하천으로서 1685년에 굴착되었다.
- 1924년에 이 강은 매립되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강을 무대로 먹고 마시고 가무를 즐기는 등 강가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을 누렸다.
- 이러한 당시 모습이 일목요연하게 병풍(浪華曾根崎図屏風)에 남아 있는데, 이 병풍에 묘사된 장소, 사물, 인물의 상세한 고증과 분석을 했던 바, Sijimi강에서의 뱃놀이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 이 강은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도 Osaka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수많은 문인 묵객들이 많은 문장으로 남기고 있어서 심정과 애정

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Osaka 거리의 매력이 배가되었음을 알리고 있어 현대 도시의 재생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있다.

4. 강이나 수변이 가진 기능

- 하천은 홍수, 하수의 배출 그리고 수질정화 등의 치수와 방재 기능 외에 수원(水源), 배의 운항, 어업 등 물을 이용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이는 논리적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사회기반으로서의 기능에 해당하며, 이제까지 하천정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이외에도 강이나 수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자연형 하천공법에 이러한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데, 앞의 Sijimi강의 예와 같이 도시 하천이나 수변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스며드는 관계성적 기능(關係性的 機能)이 있어야 하며, 이를 강이나 수변이 가지는 지적 자산으로서의 문화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관계성적 기능에는 미각을 제외한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호소가 필요한데, 먼저 시각을 통해서는 open space를 느끼는 동시에 수면과 그 반사광, 주변의 동식물, 물고기, 다리 등의 경치, 빛과 그림자 등에 주목하게 된다.
- 청각을 통해서는 흐르는 물소리나 배의 소리를 느낄 수 있는데, Meiji, Taisho시대까지 다리 위의 발소리, 다리 아래 노 젓는 소리라는 말이 남아 있어서 일상생활 중에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외에도 촉각을 통해서는 물의 존재와 함께 흐름을 느끼고, 불어오는 바람에서 청량감을 느끼며, 후각을 통해서는 물과 바람의 냄새를 느끼고 이를 통해서 강과 수변의 개방감을 맛보게 된다.
- 오감을 통해서 강과 수변을 느낀 후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상념에 잠기는데, 강물의 끊임없는 흐름에 빗대어 세상살이에 대해 생각한다는지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는 등 강과 수변에서 얻은 감각에 의해 일어나는 인식에 따라 사람들은 다양한 사유에 잠기게 된다.

- 강과 수변이 사람들의 심성에 호소하거나 감성을 품는 존재라면, 사람에겐 감성과 이성이 함께 필요한 중요한 능력이 되므로, 강과 수변의 보전은 사회 기반 정비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앞의 Sijimi강은 오감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존재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하천과 수변은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

5. 향후 하천과 수변정비에 중요한 문화적 관점

- 하천이나 수변에서 얻은 감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행동한다면 이를 하천, 수변문화라 할 수 있으므로 하천 수변 정비시에 이러한 문화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 문화성을 반영하거나 감안한 하천 수변은 좁은 의미로는 사람의 감정을 호소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요소를 분석해서 물리적 설계나 기술에 반영하는 공학 즉 인간의 감성과의 관계성을 배려하는 공학을 감성공학이라 하고 있어서, 감성 공학적으로 배려한 하천이나 수변의 출현이 중요해 지고 있다.
- 예를 들어 Osaka 시내의 하천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산책로가 양쪽에 정비되어 있고 다리와 교차하는 부분은 다리 아래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조깅을 하는 사람들의 단절을 싫어하는 감성에 맞춘 것으로 산책로가 단절된다면 단순히 구조물에 불과할 것이다.
- 감성공학은 사용자의 관점을 중시하므로, 여러 하천의 산책로를 인근 주민이 걷게 하고 머리에 초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장착해서 주민들이 보고 하천정비 모습을 감상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조사는 향후 바람직한 수변환경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하천과 수변은 지역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문화와 위화감이 없도록 문화 형성에 배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채로 단순한 객체에 불과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지역문화란 그 지역의 유전자라 할 존재로서 공간의 이력이라고도 한다.

- 수변정비 시 흔히 볼 수 있는 지역문화에 걸맞지 않는 사례는 수변에는 없는 역사적 사물을 심벌로 재생시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수변을 많은 조닝(zoning)으로 나누어 정비하는 것도 사람들 눈에 혼란스러우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그리고 문화성에 맞는 하천 수변의 산물이라면 배를 들 수 있는데, 배의 운항 역할을 다시 기대할 수 없다면 놀이배로서도 가능할 것이다.

6. 결론

- 도시에 있어서 수변환경의 모습은 문화적 관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고도성장 시절에는 관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생산하는 기술로서 충분했다.
- 그러나 교통망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제도가 정비되고 충분한 식량 공급 등 경제 상태와 기술 수준이 고도화 된 문화가 문명이라면, 소자고령화 등 성숙사회에 다다른 지금엔 크게 전환하여 문화 등과의 관계성도 배려한 공학이나 기술이 점차 필요하다.

출처 : 角野昇八, “都市における水辺環境のあるべき姿”, 「環境技術(日本)」, 34(3), 2005, pp.190~194

◁ 전문가 제언 ▷

- 우리나라도 개발시대엔 하천이 가진 자연적이고 생태적 문화적 기능을 무시하고 복개도로와 고가도로 등 구조물들이 도시의 경관과는 어울리지 않게 건설된 바 있다.
- 그러나 90년대 이후 대도시를 비롯하여 주민들은 문화적인 욕구와 아울러 물질이 우선하는 대도시 문명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복개하천의 복원이나 수변환경의 정비가 시작되었다.
- 본문에서는 일본 Osaka시의 고대 사례를 통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객체와 함께 관계성으로서의 문화를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이미 일본 Osaka시는 하천과 함께 고수부지와 수로를 정비하면서 산책로와 자연적인 생태계를 복원하고 배의 운항까지 추진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한강, 청계천 등 산자수려한 곳에서 많은 시인 묵객이 찬미했던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이제 양재천과 안양천의 성공적인 수변정비 사례에서 보듯이 자연생태계를 고려하여 정비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청계천 조성 정비공사는 복개도로를 걷어 내고 도심 수변을 정비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어 전 세계에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 현재 서울시는 청계천의 문화를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과 동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러한 도시하천의 복원에는 그 지역 특성에 알맞은 형태의 복원으로 되어야 하며, 이는 문화적인 접근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